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초고령·4차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보장[1)]

정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국민연금제도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시간과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을 고려할 때 어떤 정책보다도 긴 시간 동안 전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비정형 노동의 증가, 가족구성 방식의 변화 등 급격한 사회적 전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고령·4차혁명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여전히 여성노인의 빈곤문제와 성별 연금격차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새로운 도전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2030여성의 관점에서 관련제도의 현황 검토, 노후소득보장 수준 예측,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인식 및 준비도 파악을 통해 성평등한 미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2030여성의 일자리 및 국민연금 가입 특성

우리나라 2030여성의 미래 노후소득 수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들의 현재 일자리 특성과 국민연금 가입 현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총 납부기간과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창출은 국민연금 외의 다른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 본 원고는 다음의 연구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 및 요약하였습니다. 정가원·김영란·이민호·강경주·김혜영·황남희·문유진(2023).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II): 초고령·4차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 일자리 특성[2)]

(1) 고용형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2030여성의 고용형태를 살펴본 결과 20대 여성은 상용근로자 비율이 67.1%, 30대 여성은 73.4%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연령대 남성의 상용근로자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30대 여성은 30대 남성에 비해 임시근로자 비율이 약 4.3%p 높았고, 경제활동인구 규모를 살펴보면 30대 여성의 경우 211만명으로 30대 남성의 317만명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30대 성별 고용형태

(단위: 천명, %)

성별		남성				여성			
연령		20대		30대		20대		30대	
		N	%	N	%	N	%	N	%
상용근로자		1,174	63.1	2,327	73.2	1,329	67.1	1,554	73.4
임시근로자		460	24.7	242	7.6	515	26.0	252	11.9
일용근로자		93	5.0	81	2.6	38	1.9	28	1.4
자영업자	고용원 있음	32	1.7	166	5.2	9	0.5	52	2.5
	고용원 없음	80	4.3	312	9.8	73	3.7	183	8.6
무급가족종사자		20	1.1	48	1.5	15	0.8	47	2.2
계		1,862	100.0	3,179	100.0	1,981	100.0	2,118	100.0

출처: 통계청. 20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 산업

우리나라 20대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9%), 숙박 및 음식점업(15.0%), 도매 및 소매업(12.2%), 교육서비스업(10.9%)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았고, 30대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5%), 교육서비스업(13.6%), 도매 및 소매업(13.4%), 제조업(13.2%)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에 비해 20대 및 30대 남성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각각 21.6%와 24.8%로 가장 높았다.

〈표 2〉 20~30대 성별 종사 산업

(단위: 천명, %)

성별	남성				여성			
연령	20대		30대		20대		30대	
	N	%	N	%	N	%	N	%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19	1.0	53	1.7	5	0.3	18	0.9
광업(05~08)			0.5	0.0			0	0.0
제조업(10~34)	401	21.6	789	24.8	170	8.6	280	13.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6	0.3	15	0.5	3	0.2	4	0.2

2) 통계청. 20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연구진 재분석.

〈표 2〉 20~30대 성별 종사 산업(계속)

(단위: 천명, %)

성별	남성				여성			
연령	20대		30대		20대		30대	
	N	%	N	%	N	%	N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4	0.2	22	0.7	1	0.1	1	0.1
건설업(41~42)	131	7.1	247	7.8	30	1.5	40	1.9
도매 및 소매업(45~47)	258	13.9	387	12.2	241	12.2	283	13.4
운수 및 창고업(49~52)	104	5.6	228	7.2	42	2.2	48	2.3
숙박 및 음식점업(55~56)	270	14.5	167	5.3	296	15.0	113	5.4
정보통신업(58~63)	112	6.0	221	7.0	119	6.0	110	5.2
금융 및 보험업(64~66)	27	1.5	102	3.2	57	2.9	88	4.2
부동산업(68)	3	0.2	29	0.9	12	0.6	24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88	4.8	226	7.1	161	8.2	148	7.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81	4.4	124	3.9	57	2.9	78	3.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74	4.0	164	5.2	69	3.5	115	5.4
교육 서비스업(85)	98	5.3	123	3.9	216	10.9	288	13.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72	3.9	88	2.8	375	18.9	349	16.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50	2.7	65	2.1	54	2.8	39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53	2.9	114	3.6	65	3.3	78	3.7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0	0.0	0	0.0	0.7	0.0	4	0.2
국제 및 외국기관(99)	1	0.1	3	0.1	0	0.0	0	0.0
전체	1,862		3,179	100.0	1,981	100.0	2,118	100.0

출처: 통계청. 20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3) 소득

같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소득의 차이가 발견되며, 남성의 경우 20대 소득에 비해 30대 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지만 여성의 경우 20대 소득에 비해 30대 소득이 남성만큼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20~30대 성별 종사 산업별 소득

(단위: 만원)

연령	20대		30대	
성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215.9	230.0	207.3	178.2
광업(05~08)	-	-	240.0	-
제조업(10~34)	277.2	272.6	359.3	277.5

〈표 3〉 20~30대 성별 종사 산업별 소득(계속)

(단위: 만원)

연령	20대		30대	
성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412.8	249.6	369.5	283.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257.6	200.0	319.5	233.1
건설업(41~42)	282.0	263.9	347.5	294.2
도매 및 소매업(45~47)	203.9	188.7	310.6	254.2
운수 및 창고업(49~52)	235.7	207.8	314.7	271.5
숙박 및 음식점업(55~56)	170.3	116.2	285.3	187.1
정보통신업(58~63)	270.3	264.0	381.2	309.7
금융 및 보험업(64~66)	253.6	274.3	440.9	353.0
부동산업(68)	295.9	222.1	317.9	262.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257.5	250.2	418.1	344.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234.8	215.2	300.8	222.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248.9	214.0	328.4	268.5
교육 서비스업(85)	179.2	188.7	318.1	268.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244.0	254.0	354.4	252.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181.0	150.1	223.7	233.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216.4	196.7	270.8	214.2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	50.0	-	86.5
국제 및 외국기관(99)	200.0	-	387.0	-
전체	229.3	206.7	323.3	244.9

출처: 통계청. 20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4) 근로시간

20대 남성 중 36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이 57.0%로 여성(42.5%)보다 높았으며, 평균 근로시간은 20대 남성이 37.3시간, 20대 여성이 33.1시간이었다. 30대의 경우 36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이 남성은 63.4%, 여성은 41.9%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근로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20~30대 성별 근로시간

(단위: 명, %)

구분	20대				30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N	%	N	%	N	%	N	%
1~17시간 무급가족종사자	10	0.5	6	0.3	3	0.1	13	0.6
0~35시간	795	42.5	1,137	57.2	1,162	36.5	1,226	57.5
평소 1주일에 36시간미만 일함	303	38.0	453	39.8	125	10.8	331	27.0
일시적 병, 사고	16	2.1	6	0.5	18	1.6	17	1.4

〈표 4〉 20~30대 성별 근로시간(계속)

(단위: 명, %)

구분		20대				30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N	%	N	%	N	%	N	%
	일기불순	5	0.7	-	0	5	0.5	2	0.2
	연(휴)가, 공휴일	462	58.1	665	58.5	975	84.0	795	64.9
	교육, 훈련	1	0.2	-	0	0.403	0.0	1	0.1
	육아	-	0.0	5	0.5	10	0.9	61	5
	가족적 이유	0.796	0.1	0.381	0	4	0.3	3	0.2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5	0.6	8	0.7	17	1.4	12	1
	사업부진, 조업중단	1	0.1	-	0	6	0.5	1	0.1
	기타	0.677	0.1	-	0	-	0	2	0.2
36시간이상		1,067	57.0	844	42.5	2,018	63.4	892	41.9
계		1,872	100.0	1,988	100.0	3,182	100.0	2,132	100.0
평균		37.3(12.6)		33.1(11.8)		40.5(11.0)		34.9(10.5)	

출처: 통계청. 20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20대 여성 고용률이 20대 남성 고용률에 비해 높고, 20대 여성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20대 남성의 근로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나 노후소득 준비 측면에서 20대 여성이 20대 남성보다 반드시 더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활동인구 규모에서 30대 남성과 30대 여성은 약 106만명의 차이가 있었으며 30대 여성이 실업률, 고용률, 임시근로자 비율 측면에서 30대 남성보다 모두 불리하였다. 30대 여성의 경우 20대 소득 대비 30대 소득이 남성만큼 증가하지 않았고, 30대 여성의 근로시간도 30대 남성에 비해 더 짧았다.

나. 국민연금 가입 특성

(1) 국민연금 가입률[3)]

20대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11조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7세까지는 가입자격을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가입자 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2021년 기준으로 30대 여성의 경우 20대 여성에 비해 가입자 수가 45.1만명 정도 많은 데 반해, 30대 남성은 20대 남성에 비해 121.6만명 정도 더 가입자 수가 많았다.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20대 및 30대 남성과 여성 인구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나누어 국민연금 가입률을 계산해보면 20대 여성이 43.5%(20대 남성 38.7%), 30대 여성이 56.2%(30대 남성 73.9%)로 남성은 30대가 되면 가입률이 대폭 증가하는 데 반해 여성은 그렇지 않았다.

(2) 국민연금 가입자 특성

가입 종별로 살펴보면 2030여성과 남성 모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순으로 가입비

3)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통계(2018-2021). 연구진 재분석.

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으나 서울·경기·인천 등의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가입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득구간별로 살펴본 결과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별에 관계 없이 300만원 미만의 구간에 약 90% 이상이 분포해 있는 반면 사업장가입자는 성별에 따른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30대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을 살펴보면, 30대 남성과 여성 모두 200~300만원(남성 29.0%, 여성 36.2%)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었으나 두 번째로 많이 분포하는 구간이 30대 남성은 300~400만원(24.5%) 구간, 30대 여성은 100~200만원(23.8%) 구간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3)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4)]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를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적용제외자를 합한 범위라고 상정한다면 여성은 54.2%, 남성은 45.8%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세를 기점으로 사각지대에 포함된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높아지기 시작하며, 또한 여성은 30세 이상부터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이들 여성 적용제외자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머무는 기간이 10년 이상인 비율이 20.8%로 남성 적용제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여성 적용제외자의 노후소득 준비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4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30대부터 뚜렷하게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가입률 격차 및 소득구간과 가입종별에 따라 나타나는 가입률 격차는 엄연히 존재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 30대부터 적용제외자 비율, 10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가진 비율 등이 높아지면서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3. 2030여성의 미래 노후소득 전망

가. 2030여성의 노후소득 수준 예측

가설적 인구집단 방식을 활용한 2030세대의 노후소득 수준을 추정한 결과 가설적 인구집단 12개 모두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인 40%를 넘지 못하였다.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와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차이가 성별 노후소득 수준의 차이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성 집단 내에서는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인 경우 경력단절에 따른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나며, 고용안정성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 경력단절 경험여부에 상관 없이 노후소득 수준이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에서 도출한 현재 시점의 2030여성이 희망하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금액과 적정금액 모두 본 연구에서 추정한 노후소득 수준을 훨씬 상회하여, 국민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외에 다른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을 2030세대가 갖출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4) 유희원 외(2021).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대응방안.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진 재구성.

시사하였다.

또한 전문가델파이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노후소득의 양극화 및 현 청년세대의 국민연금 급여 수준 및 납부 측면에서 '다중 불리'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상용직 중심의 국민연금제도가 청년세대를 구조적으로 배제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 현재 청년세대의 입직시기가 늦고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 연금개혁으로 연금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불리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전문가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변해야 하는 방향성으로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을 1순위, '사회적 재분배'를 2순위로 꼽았다. 다만 이는 2030여성의 의견과 차이가 있었는데, FGI에 참여한 30대 여성은 연금개혁에서 우선시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세대 형평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을 받으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더 강화시키고 있었으며, '적어도 납부한 만큼은 받고 싶다'는 강한 요구가 있었다. 2030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에서도 연금개혁 방향성의 우선순위로 2030여성과 남성 모두 '세대 형평성'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나. 2030여성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인식과 지원수요

(1) 2030여성의 노후소득 준비현황

본 연구에서 2030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취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는 20대가 17.1%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30대에 비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본인의 권리이자 책임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은퇴 후 예상되는 가장 주된 소득원은 국민연금(29.8%), 예·적금(20.5%), 개인연금(12.1%), 퇴직연금(10.4%), 근로소득(10.4%), 주식 등 투자수익(8.9%), 부동산 수익(5.5%), 가족 지원(2.2%)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하고 있는 비율은 응답자의 42.3%였고, 여성보다 남성이, 20대보다 30대가 더 적극적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하고 있었다. 특히 남성은 주식 등 투자를 통해 공격적이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소득을 준비 중이며 여성은 예·적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지출금액은 20대에는 남녀가 비슷하다가 30대부터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20대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음', 30대는 '소득이 적어서' 비율이 높았고, 30대 여성은 '소득이 적어서', '다른 필수적 지출이 많아서' 노후소득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FGI에 참여한 20대 여성은 노후 및 노후소득 준비에 대해 '불안'과 '막연함'이라는 지배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취업 전인 경우 현재의 소득 창출 없이 노후 및 노후소득 준비는 '느낌'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영역이었다. 취업 이후에도 여전히 노후소득 준비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기에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30대 여성에게 '막연함'이라는 느낌은 20대였을 때보다 줄어들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노후소득 준비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 2030여성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및 우려

2030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불신 수준 모두 20대에 비해 30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동의 수준도 30대 여성에서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우려 수준도 '인구감소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이다', '받게 될 국민연금 급여액이 너무 적을 것이다', '기금고갈로 연금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다'와 같은 항목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특히 30대 여성의 우려 수준이 가장 높았다. FGI에 참여한 2030여성에게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유일한 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 현실과 인식의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2030여성이 기대하는 성별 연금격차 해소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2030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성별 연금격차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연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전반적인 노력', '여성의 무급 돌봄기간에 대한 보상', '연금개혁 시 성별 연금격차 해소를 고려'에 대한 여성의 동의 수준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동의 수준은 '추후 납부제도 강화', '육아휴직 가입기간 동안 국민연금 유지', '돌봄크레딧 신설', '출산크레딧 확대', '노후소득 준비 관련 교육과 재무컨설팅 제공', '연금보험료 지원', '군복무·실업크레딧 확대', '학업·직업훈련크레딧 신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노후소득 준비 관련 교육과 재무컨설팅 제공', '출산크레딧 확대', '학업·직업훈련크레딧 신설'에 동의 수준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추후 납부제도 강화', '육아휴직 가입기간 동안 국민연금 유지', '돌봄크레딧 신설', '연금보험료 지원'에 동의 수준이 높았고, 남성은 여성보다 '군복무·실업크레딧 확대'에 동의 수준이 높았다.

4. 나오며

상기에서 살펴본 2030여성의 일자리 및 국민연금 가입 특성과 미래 노후소득 전망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2030여성의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2030여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출산크레딧 확대, 돌봄크레딧 신설이 요구되는데 이는 2030여성이 남성에 비해 명확하게 낮은 고용률, 높은 실업률, 높은 임시근로자 비율, 낮은 소득, 낮은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내에서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임신·출산 등으로 30대에 적용제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20대 저소득 실업자에 초점을 맞춘 실업크레딧 확대를 고려해봄직하다. 여기에는 자부담 25%를 없애는 방안, 실업크레딧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의 지원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마찬가지로 실업크레딧의 인정소득을 최대 1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2030여성의 고용 특성을 반영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개선이 요구된다. 30대 여성의 임신·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잦은 경력단절 가능성과 2030세대 저임금 근로자의 잦은

입·퇴직과 불안정 고용을 고려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국민연금 기가입자에 대한 인정과 모든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2030여성 관점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개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직 사각지대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이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가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가입자였다가 퇴직 이후 적용제외가 된 경우와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특정 소득기준 이하인 경우 전환 초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기존의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기간도 현재의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셋째, 노후소득보장정책과 관련 정책 간 연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정책은 2030여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노동시장 및 가족구성 경향성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임금·저소득 계층 2030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정책과 노후소득보장정책 간 긴밀한 연계도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비정형 근로자 등, 최근 표준적 고용관계가 쇠퇴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불안정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없는 저임금·저소득 계층 2030세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독립적 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연금체계로 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노후소득보장정책은 노동정책, 성평등정책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노동정책은 개인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개인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해당 개인의 미래의 삶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노후소득보장정책 역시 개인이 노후에 접어든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노후에 접어들기 전 과거의 삶과 일까지도 조망할 수 있어야 하기에 노동정책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노후소득보장정책과 성평등정책 간의 연계를 통해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가족 내 편향된 돌봄책임, 성별 연금격차 등이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성평등 관점에서 연금개혁이 논의되어야 한다. 연금개혁 논의에 다양한 관점을 통합해야 하며 특히 성평등 관점에서 성별 연금격차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리한 지위, 가족구성 방식의 변화 등이 다양한 세대의 여성과 남성의 노후소득 보장에 다르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돌봄크레딧을 도입하여 돌봄을 주류화하고, 1인 1연금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여 여성의 무연금·저연금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비정형 노동의 증가, 노동시장 양극화, 전반적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1인가구의 증가, 노후준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중요시하는 인식의 변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적 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노후소득 준비의 측면에서 가장 불리할 수 있는 집단에게 적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개혁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다섯째, 2030세대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2030세대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 연금개혁 논의구조에 2030세대를 포함시킴으로써 공식적인 차원에서

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요구된다. 2030세대는 현재 시점의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미래 시점에 발생할 일들에 대한 우려가 큰 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기보다는 2030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연금개혁의 목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급여가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30세대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세부 개선방안으로는 추후 납부제도 개선(2030여성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퇴직 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에 대한 구체적 안내를 통한 미납 방지. 기존의 무소득 배우자(적용제외)의 추납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인 '1개월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라는 단서조항 삭제), 출산크레딧 조건 완화(첫 번째 자녀부터 부여 및 연금가입 인정기간도 최장 60개월로 연장, 출산 시점에서 크레딧 부여), 돌봄크레딧 신설(남녀 모두의 자녀양육 및 가족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 돌봄이 페널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기제로서 국민연금 돌봄크레딧 도입), 직업훈련크레딧 신설(실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고, 취업 준비기간이 매우 길어진 20대를 고려하여 저임금·저소득 2030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 및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채우고 급여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 제고) 등이 고려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통계(2017-2021).

유희원·류재린·김혜진·김아람(2021).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대응방안.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20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3-2022). 각 연도.